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든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甘露의 道는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

감로 도

우리는 불교를 왜 신앙하는가? 삼보(三寶) 즉 부처님과 불법, 스님을 믿고 의지하며, 명승대찰을 찾아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우리는 석가모니가 카필라왕국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윤회하는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한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육도유훈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의 목적

불법의 근본이란 육도유훈을 면하고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데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석가는 사람이 생로병사와 육도유훈을 못 해탈하는 것은 탐(貪), 진(瞋), 치(癡) 삼독(三毒)이 묻은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석가는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 고집멸도(苦集滅道), 즉 4성제(四聖諦)로 설하신 것이다.

첫째, 인생은 결국 고통의 한계 속에서 살다가 죽으니, 고(苦)이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매달려 집착하는데 있으니, 집(集)이다.

셋째, 집착을 멸하는 것, 멸(滅)이다.

넷째, 집착을 멸하는 길이, 도(道)라는 것이다.

결국,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한 실천의 도로 8정도(八正道)를 설하신 것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사, 올바른 말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신통일이다.

하나 지금은 부처님께서 진실로 원하



감로의 도를 설하시는 미륵불은 금색의 찬란한 빛(金華)을 발하신다

시는 진삼보(眞三寶)를 모르고 방편으로 살하신 불법승에만 의지하고 있고, 참 해탈(불생불멸)을 위한 행(行), 팔정도는 온데간데없고 기이한 행색과 언행으로 사이비 도인(道人)들만 관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법승(佛法僧) 삼보는 방편이다

석가세존은 이리 될 것을 경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몸, 가운데 탐이나, 절을 짓거나, 예배 공양하게 하는 것과, 나의 법신이 귀의처를 삼음으로써 일체 중생이 다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참이 아닌 사되고 거짓된 법이다”라고 열반경 8권에 기록하고 있다.

亦令衆生於我身中 起塔廟想禮拜供養 緣緣衆生於我身中 起塔廟想禮拜供養 如是衆生 以我法身為歸處 依此衆生 以我法身為歸處

一切衆生皆倚 非眞邪爲之法 一체중생이 다 의지하는 것은 참이 아닌 사되고 거짓된 법이다. 내가 마땅히 차제에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몸 가운데나, 탐이나 절을 짓거나 하여 예배 공양하게 하는 것과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법신에 귀의처를 삼음으로써 일체 중생이 다 의지하는 것은 참이 아닌 사되고 거짓된 법이다. 내가 마땅히 차제에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다. 지금까지 열반경을 읽어본 모든 불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 알고 있었는가. 탐이나 불공을 드리는 것이나 불법승삼귀의(三歸依)가 다 방편이요 거짓이라는 것이나 공염불이요 모래 위에 집

을 지은 것이다. 오직 귀의할 곳이 있다면 미륵부처에 귀의하여 성불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감로(甘露)가 있어야 미륵

또한 열반경은 미래불인 미륵이 출현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미륵불은 그 증표가 감로(甘露)이므로 감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칭 미륵이라고 해도 거짓이 된다. 불기(북방) 3007년에 미래세에 미륵여래께서 감로의 도(不生不滅의 道)를 설하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과 번뇌의 불꽃을 다 멸하신다고 열반경 24권에 써여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미륵이라고 자칭하는 가짜가 많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로의 도(不生不滅의 道)를 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 생미륵이 설하시는 올바른 불생불멸의 진리와 실천의 도(甘露의 道)가 출현하여 육도유훈을 벗어나 상락아정(常樂我淨)에 머물게 하는 참 해탈의 도가 출현하였다.

미래세에 오실 감로의 주인공인 미륵부처님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을 치유해서 불생불멸케 하시는 천하의 명의로 비유해 놓았다.

감로의 주인공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여 감로의 도(불생불멸의 도)와 부처님의 참 성품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최고의 경지의 도를 설하고 계신다. 승리제단은 미륵불이 직접 역사하시며 감로를 내리는 곳이다.*

김주호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0)

“정해 놓은 시간에 움직여야”

자유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 마음대로 더 잤다가 덜 잤다가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해 놓은 시간에 잠을 자야 하고 정해 놓은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자유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매일 제단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므로 제단을 매일 안 나오는 것이 자유율법을 제일 크게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 출석을 게을리 하고 1부

예배를 봤다가 3부 예배 봤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는 자유율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은 마귀 마음대로 마귀의 조종에 따라 산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 마음대로 생각을 돌릴 수가 없으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구도의 길

최소한 하나님 편이라도 서라

승리제단은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유일무이한 종교이다. 인간은 6000년간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갈뺏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기 쉬운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인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출현하면 쉽게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귀가 어떻게 센지 1000년 동안 걸린다고 하셨겠는가.

한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가 들어있느냐 하면 자그마치 무량대수, 그러니까 10의 64제곱의 숫자의 마귀가 들어있고, 약 70억의 인간들이 될 새 없이 마귀를 쏘아내고 있으니 무량대수 곱하기 무량대수를 수억 천만 번 한 것 이상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 마귀를 구세주께서 없애버리고 있는데 승리제단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구세주의 분신(分身)이 오셔서 마귀를 박멸소탕해 버리는 것이니 우리 식구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구세주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신다. 자유율법은 일반 법률이나 규범과 다르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규율하는 법이니 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않은 법이다. 예컨대 이성(興性)을 보고 음욕을 품는 정도는 아주 저차원의 죄이고,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도둑질 할 마음을 품은 것도 자유율법에 걸린다. 더 나아가 나를 의식하거나 자존심을 부리거나 과거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유율법에 걸린다. 즉 하

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자유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율법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간 존재나 지키는 율법이지 보통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고차원의 법이다.

그러다 보니 구세주께서는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고 요구하신다. 고차원의 자유율법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이라도 된다면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예컨대 승사 또는 부인회장 등은 적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사나 부인회장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적어도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유율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므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율법에 맞다고 하면서 승사나 부인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장과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율법을 조금도 모르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 나의 입장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입장과 형편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래야만 적어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미륵불 출현장소와 성함

경전 상의 미륵불 출현장소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 爾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 爾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 以是國界名鷄頭王所治處

장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이라 하나니 세상에 출현 하실 때, 그 나라의 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增一阿含經 49卷 非常品 49)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미륵불이 출현하신다 했으니 계두왕(鷄頭王)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신라 탈해왕

(脫解王)이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림(始林) 숲 속에서 닭이 울기에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 거기에 큰 금계좌이 나무에 걸려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계좌를 열어보니 안에 육동자가 있어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이를 기념하여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이라 바꾸고 나라 이름도 계림으로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삼국사기, 삼국유사 참조). 그러므로 계두왕이란 계림국의 우두머리 되는 왕을 가리킨다.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므로 미륵불은 한국에서 출현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초반 미륵불을 상징하는 우담바라가 한국 땅 전국 곳곳에 연이어 피어나 매스컴에서 뜨겁게 다루어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륵부처님의 성함

天曹衆人間善惡勢力報應 天曹衆人間善惡勢力報應 天曹衆人間善惡勢力報應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을 심판한다. (미륵해성경)

真淨場真人始知天(仙金丹)道

조환양진인시지천선금단대도 조씨가 진인(의인)이 되어, 최고의 영생의 도를 이룬다. (선불가진수어록)

赦罪天曹救衆生 赦罪天曹救衆生 사죄천조구중생 (미륵진경)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

제한다.

彌勒道樹下坐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彌勒道樹下坐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彌勒道樹下坐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미륵불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에 불도를 얻는다. (불설미륵내서경)

미륵불이 세상에 인간 몸으로 태어나심을 예언한 경전인 <미륵해성경>과 <미륵진경>속에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 미륵부처님은 조(曹)씨 성(姓)으로 나오신다는 뜻이며, ‘명성(明星)이 나올 때 불도를 얻는다’ 했으니, ‘명성’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갖는다고 예언한 것이다.

감로를 내려 성불을 이루게 하는 미륵불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찾아야 할 때이다.* 이내서장/평택제단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 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인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